

농어촌공 군산지사, 물관리 현장 설명회 열고 농업인과 소통 강화

▲ 김경창 기자 | ② 승인 2026.04.23 15:39

기후 위기 대응 용수 공급 대책 공유...영농 현장 의견 적극 반영
실시간 문자 안내 서비스 도입...안정적 영농 환경 조성 나서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는 23일 운영대의원, 관내 농업인, 수리시설 감시원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의실과 입석 양수장에서 '2026년 물관리 현장 설명회 및 간담회'를 열었다.

군산지사는 농어업인과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물관리 대책을 공유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군산지사는 이날 ▲한국농어촌공사 유지관리 사업 계획 발표 ▲기후 위기 대응 용수 공급 대책 설명 ▲영농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설명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은 입석 양수장으로 이동해 수리시설 감시원을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교육을 했다. 이어 지사장이 직접 시운전을 진행하며 영농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군산지사는 올해부터 '농업용수 공급·단수 예고' 실시간 문자 안내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고, '비대면 농업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중장기 물관리 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서기수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는 "기후 위기 시대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은 농업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농업인과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사는 해마다 영농 급수에 앞서 관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물관리 계획을 설명하고 영농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이어오고 있다.



강경창 기자 kangkyungchang@hanmail.net